

# 함께 손잡고 새로운 도약!

### 전북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상생협의회 개최 기관별 추진상황·계획 공유 등 교류의 장 마련 지역발전사업 발굴과 인재채용 확대 방안 협의

전북도(도지사 송하진)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상생발전사업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는 12일 한국전기안전공사 회의실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시·군, 유관기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범기 정부부지사(위원장) 주재로 '제24회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의회를 전기안전공사로 택한 데는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연구실증단지 건립, 교육원 이점을 포함한 전기안전융합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면서 지역산업 연계에 도움이 되고 있어서다.

이번 상생협의회는 기관별 상생발전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 전북혁신도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물론, 지역 상품 우선구매 등 지역상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공공기관 시설 개방, 지역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발굴 추진 등 주민편익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 간척지 첨단 농업 연구소 건립 등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전북도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힘을 모았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2중학교 설립, 문화·체육시설 신속한 건립, 문화프로그램 확대 등을 건의하였으며, 전라북도는 시·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한편, 전북도는 부기관장급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의는 별도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생발전 실무협의회'와 '지역인재채용 실무협의회' 등 2개 실무협의회(위원장:도 혁신성장 정책과장)를 새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들 실무협의회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상생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무소통 채널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우범기 정부부지사는 "정부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이전과 정착에 그치지 않고,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하고, 클러스터 활성화,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며, "공공기관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끊임없이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해야만 전북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공정의 힘으로' 12일 전주 오벨리스크에서 열린 '공정의 힘으로 전북의 미래를 열자'라는 도민들의 전환운동 실천 결의대회에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도의회의장, 임병찬(사)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전북애향운동본부 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전주·군산·익산 포함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존에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설정하고, 배출량·기상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7개 특·광역시 및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켰는데, 우리 도는 전주, 군산, 익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권역별로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한 것은 지역별 상호영향 및 관리의 실용성 등을 고려하기 위함으로 중부권 관리권역은 전북을 포함해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포함됐다.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을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

하고, 대기환경개선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 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며, 법 시행 후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권역에 위치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1~3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중부권역의 경우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총 256개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이며, 이 중 전북도는 약 56개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게 되는데,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하게

된다. 또한, 할당된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여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 이미 2007년에 도입하여 400여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에 있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총량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측정을 자동화해야 하고, 반면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및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가 130% 상향 조정되는 등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권역내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초과 시 저감장치 설치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배출가스 억제조치, 할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전북도는 환경부, 시·군 등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모의훈련을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환경부 등과 협의회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모의훈련은 다가오는 고농도 시즌(12월~3월)에 대비하고 실무매뉴얼에 의한 대응력 확보를 위하여 실시된다.

15일 실시되는 모의훈련은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전날

(14일) 훈련메시지를 부여받고 당일(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상회의, 서면 및 일부 실제 훈련에 임하게 된다.

'주요'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사태 조치 2단계 훈련이 진행되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14개 시·군과 함께 영상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재난 대응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실제훈련은 관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출퇴근차량 2부제, 공공 소각시설 처리효율 개선, 노면 청소차량 운영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이 시행된다. /김진성 기자

모의훈련 결과를 통해 도는 실무매뉴얼을 보완하고 시·군은 행동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실무매뉴얼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 경보를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일 실시한 1차 모의훈련 결과, 상황대응 체계,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계획 등 전 분야에서 환경부 평가결과 적정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진성 기자

## 전북학연구소·제주학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전국적 지역학 네트워크 구축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소는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소와 12일 학술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전북학연구소와 제주학연구소의 지역학 네트워크 형성 과 학술교류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좌혜경 제주학연구소장(직무대리), 김순자·현혜경 전문연구원, 김미진·고은솔·김성필 전문연구원 등과 김동영 전북학연구소장, 박정민 부 연구위원, 권이선 전문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본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지식정보, 인적자원 등의 교류 △공동캠페인, 교육 및 조사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시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학연구소는 전북의 역사·문화·인물 등을 정리하고 전북의 정체성을 정립하여 미래 전북 발전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가기 위해 올 5월에 출범했다.

전북학연구소는 지난 10월 4일 강

원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제주학연구소와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명실공히 지역학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김동영 전북학연구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타 지역과 협력하고 공동조사·연구를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북학의 발전과 지면 확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노인장애인 분야 전문인력 수 늘려야"

한완수 부의장, 도 노인장애인과 분과 약속 받아내

전북도의회 한완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임실)은 12일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노인장애인과 분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복지여성보건국으로부터 내년 상반기 중 분과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 처럼 노인장애인 업무를 단일 과로 편성한 곳은 충북, 강원 두 곳이며 전담인력 20명 이하는 전북과 강원 2곳에 불과하고,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노인장애인 분야 전문인력 수 순위는 16위로 꼴찌라며 노인장애인복지과를 2020년 상반기 내에 분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도감사관실, 인권센터, 예산과 등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여성보건국과 소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직을 대폭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당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연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장외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치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레크

※ 참고

-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희망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 ④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터키양복점 건물)  
(H·P: 010-2078-4810)

### 명강사 초청 무료 공개 특강

도민 여러분!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에 재미있고 중요로움이 있는 특강에 무료로 초대합니다. 감성과 표현의 시대, 이미지시대, fun의 시대, 소통의 시대에 본 강의를 통해 재미있고 행복하며 유익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용혜원



강사: 김양옥

- 시인, 베스트셀러 작가
- 유머 자신감 연구원장
- KBS TV 아침마당 등 인기 강사
- 2009년 한국강사협회 추천 명강사
- 강의주제: "딱 한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자"
-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 면접 실기 강사
-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 대표
- KBS TV 아침마당 출연 등
- 강의주제: "전장을 위한 스피치"

◎ 일 시 : 2019. 11. 21.(목) 오후 7시  
◎ 장 소 : 참예우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칠길굴다리 앞)  
(주소주소: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9, 전주완주김제축협)  
◎ 문의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

한국스피치·면접·리더십 컨설팅  
전북도내 스피치과정 원우회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